

향유층의 시선을 통해 본 <한양가>의 당대적 의의*

박 은 빈**

차 례

1. <한양가>에 대하여
2. 이본 현황
3. 내용상 구성 방식
4. 작가 및 향유층에 대하여
5. <한양가>의 당대적 의의와 역할

| 국문초록 |

<한양가>는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풍속과 문물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19세기 한양의 모습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는 가사이다.

<한양가>의 내용 구성은 크게 '궁궐과 관청' - '시장과 놀이' - '능행과 과거'로 나뉘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 구성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작품의 전개가 초반에는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가 점차 인물들의 행동과 의례를 중심으로 변해간다는 점이다.

<한양가>의 내용 구성이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은 향유층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다. <한양가>의 작자로 알려진 한산거사는 19세기 서울에서 거주하던 별감과 같은 중간계층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작품 내에 무관직 관리들에 대한 묘사가 자세하고 서술에 있어서 다수의 분량을 차지한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작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양가>의 향유층은 조선 후기의 별감 등의 무관을 포함한 중간계층이며 왕실의 의례를 수행하는 하급 관리직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향유층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당대의 입장에서 <한양가>는 단순히 한양의 문물을 노래하는 가사가 아니라 한양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경험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공유하며 같은 집단 내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한양의 주민들은 <한양가>를 통해 한양이라는 공간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 이 논문은 2023년 11월 18일에 열린 “한국시가문화학회 2023년 동계 학술대회-호남 시가문학의 전통과 확산”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또한 <한양가>를 통하여 한양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내용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한양가>는 당대의 인물들이 능력과 과거 등의 행사를 진행할 때에 이를 참고하는 기능적인 역할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 한양가, 한산거사, 별감, 향유층

1. <한양가>에 대하여

<한양가>는 조선 후기의 수도 한양을 배경으로 하는 가사 문학 작품으로 19세기라는 시대적 흐름 안에서 다수의 이본을 생성하며 향유되어 온 작품이다. 현전하는 한양가는 다수의 이본이 있지만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19세기 서울의 풍물을 읊은 일명 ‘향토한양가’와 조선 오백년의 역사를 그린 ‘왕조한양가’가 그것이다¹⁾. 두 가사는 <한양가>라는 이름을 공유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양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만이 다를 뿐, 서로 다른 내용의 가사이다.

향토한양가 계열의 <한양가>는 19세기 서울의 풍물을 읊은 가사로 ‘향토한양가’ 또는 ‘한양풍물가’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풍속과 문물, 경관 등을 묘사하며 수도 한양의 모습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19세기 한양의 모습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는 달리 왕조한양가 계열의 <한양가>는 조선왕조의 역사를 노래한 가사로 ‘왕조한양가’ 또는 ‘한양오백년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500년 세월의 조선왕조의 역사를 노래한 가사로 조선왕조의 파란만장한 굴곡을 이야기하며 이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양가>는 ‘향토한양가’ 계열의 <한양가>이다. 향토한양가 계열의 <한양가>는 수도 한양의 풍속과 문물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19세기 한양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이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 묘사가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가 19세기 한양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볼 수 있을 정도이다. 때문에 <한양가>는 문학적인 가치뿐만 아

1) ‘왕조한양가’와 ‘향토한양가’ 외에도 해동만화 계열의 이본과 다른 내용의 별본이 있으나 두 계열의 작품처럼 이본의 수가 많지는 않다.

니라 사료적인 가치 또한 높은 작품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지어진 지 백 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한양가>를 접한 관점으로 다분히 현대인의 시각으로만 본 평가이다. 그렇다면 <한양가>는 실제로 가사를 향유하던 당대의 관점에서는 큰 가치가 없는 작품인가? 물론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한양가>는 같은 시기 작품 중에서도 그 이분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다. 이는 <한양가>가 창작되었던 19세기, 다수의 인물에게 향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양가>라는 작품이 당대의 관점으로도 큰 의미를 보이는 작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양가>가 당대의 관점에서 가치가 없는 작품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향유되고 전승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19세기의 경우 가사 문학의 폭발적인 범람이 이루어지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후기 조선은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으며 그로 인해 새로운 문학의 형태가 탄생하기 시작했다. 주로 18세기를 거쳐 새로이 생겨난 형태의 문학은 19세기에 이르러서 더욱 부흥해나갔다. 때문에 필연적으로 19세기에는 이전 시기보다 더 많은 수의 가사문학 작품들이 창작되고 향유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양가>는 이러한 가사문학 작품의 범람 속에서도 특히 많은 수의 이분을 보이며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그렇게 다수의 이분을 형성하며 향유되었던 <한양가>가 당대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주목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한양가>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작품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문주석²⁾은 <한양가>의 작자와 저작연대를 추정하고 이분을 검토했으며, 이병기³⁾는 <한양가>에 담긴 향토 의식을 예찬하며 작자 한산거사의 민족 의식을 강조하였다.

최강현⁴⁾은 이전까지 별도의 분류 없이 통용되어 연구되던 <한양가>를 ‘향토 한양가 계열의 <한양가>’와 ‘왕조한양가 계열의 <한양가>’로 구분하였으며 <한

2) 문주석, 「한양가연구」, 『숙대학보』 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55, 219~243쪽.

3) 이병기, 「漢陽歌에 나타난 서울의 모습」, 『향토서울』 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57, 137~156쪽.

4) 최강현, 「<한양가>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4.

양가)의 내용을 분류하고 작자 의식을 분석하였다. 또한 후속 연구로 <한양가>의 이본을 정리하여 발표⁵⁾하고, 여러 이본을 정리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본을 규정하는 연구⁶⁾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기철⁷⁾은 ‘한양풍물가’와 ‘한양오백년가’를 함께 두고 비교 분석하여 <한양가>의 작자의식 내에 민족의식, 종교의식, 인간평등의식, 인륜의식, 집권층에 대한 비판의식 등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이후 <한양가>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한양 공간과 연결하여 공간의 문제에 주목하거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예술의 영역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홍홍구⁸⁾는 18세기 예술사의 전환 이후 조선 후기 예술사의 입체적인 단면이 <한양가>에 잘 나타나 있다고 보고 <한양가>의 문화사적인 가치를 강조하였다.

김은희⁹⁾는 <한양가>의 ‘복합성’과 ‘이중성’에 주목하여 궁궐·관서 부분의 공간과 시정의 공간을 중심으로 <한양가>의 짜임새와 그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정인숙¹⁰⁾은 한양의 모습이 담긴 여러 종류의 시가 작품을 살펴며 <한양가> 내에 나타나는 한양 공간을 ‘유교적 이념에 기반한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공간’이라고 보았다.

최은숙¹¹⁾은 <한양가>의 작품구조와 의미를 당대인의 한양에 대한 인식과 장소성의 특성을 중심으로 탐구하였다. 최은숙은 한양 공간이 어떤 장소성을 어떤 방식으로 획득하는가를 고찰하였는데, 이는 향유자의 관점을 도입하여 작품을 이해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남정희¹²⁾는 <한양가> 속 공간의 구조적 짜임을 궁궐과 관아를 중심으로 하

-
- 5) 최강현, 「향토 한양가(鄕土漢陽歌)의 이본(異本)을 살핌」, 『배달말』 8, 배달말학회, 1983, 249~265쪽.
 - 6) 최강현, 「가사문학 이본의 처리와 주석 대상 작품의 확정 방안 <한양가>를 예로 하여」, 『한국문학연구』 2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2, 133~166쪽.
 - 7) 정기철, 「漢陽歌研究 - 作者意識을 中心으로」, 『한남어문학』 12, 한남어문학회, 1986, 91~115쪽.
 - 8) 홍홍구, 「<한양가>의 예술사의 한 단면」, 『한국어문연구』 5, 한국어문연구학회, 1990, 309~320쪽.
 - 9) 김은희, 「<한양가>의 존재양상과 그 의미」, 『반교어문연구』 26, 반교어문학회, 2009, 279~307쪽.
 - 10) 정인숙, 「19세기~20세기 초 시가를 통해 본 서울의 인식과 근대도시의 의미지향」, 『문학치료연구』 28,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165~193쪽.
 - 11) 최은숙, 「<한양가>에 나타난 한양 경관과 장소애착성」, 『한국문학과 예술』 10,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2, 5~31쪽.

는 왕조 중심적 공간에서 시정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적 공간으로, 그리고 다시 제도적 공간으로 돌아오는 순환 질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권정은¹³⁾은 <한양가>의 구조가 조선 전기의 성시문학 전통과 연결되어 있으며 <한양가> 내에 묘사된 시장의 모습과 놀이의 서술 등은 조선 후기 성시문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

한편 정영문¹⁴⁾은 <한양가>에 나타난 놀이문화의 측면에 주목하여 별감의 승전놀이, 사대부의 유가, 국왕의 능행을 참여와 관람의 방향으로 의미를 살폈으며, 이장원¹⁵⁾은 음악사적 관점에서 <한양가>를 살펴보고 작품 내에 드러난 서술을 통해 장악원의 습악 장면, 승전놀이, 능행, 유가의 네 부분을 분석하였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조원학¹⁶⁾의 연구가 있는데 <한양가>에 나타난 중간계층의 문(文), 무(武), 희(戲)에 대한 관심과 그 표현양상을 살피고 그것이 지난 문화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한양가>의 향유계층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어 의의가 있다.

이상의 연구사를 살펴보았을 때 <한양가>는 그 공간을 중심으로 연구되거나 예술사와 연결되어 연구된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향유층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또한 한양가의 향유층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한양가>가 당대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떠한 의미와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알아보려면 당대에 작품을 향유하던 향유층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의 논의에서는 <한양가>의 향유층이 어떠한 성격을 띠는 집단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한양가>의 당대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2) 남정희, 「「한양가」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 탐색」, 『한어문교육』 26,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2, 239~270쪽.

13) 권정은, 「조선시대 성시(城市)관련 시·화(詩·畫)의 지향과 <한양가>의 차별성」, 『문학치료연구』 28,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139~168쪽.

14) 정영문, 「<한양가>에 나타난 한양의 놀이문화 고찰」, 『한국문화와 예술』 35, 숭실대학교 한국문화예술연구소, 2020, 315~346쪽.

15) 이장원, 「음악사적 관점에서 본 조선 후기 가사문학-국문 가사 「한양가」를 중심으로-」, 『국악원 논문집』 43, 국립국악원, 2021, 1~27쪽.

16) 조원학, 「<한양가>에 나타난 중간계층의 관심과 그 표현양상」,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2. 이본 현황

〈한양가〉는 송신용이 1929년 말 서울의 신설동 경마장 부근의 노상 가게에서 목판본 〈한양가〉를 얻어 1939년에 경성제국대학 조선어학·문학 고서전람회에 출품하고 이후 작품을 주해하여 1949년 정음문고의 책으로 출판하여 학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¹⁷⁾.

작품의 말미에 ‘세직갑진계춘한산거스저(歲在甲辰季春漢山居士著)’라고 적혀있는 내용으로 제작 시기는 갑진년 계춘이며, 작자는 한산거사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 송신용에 의하면 〈한양가〉의 본문 내의 능행에 관한 서술에서 건릉과 현릉원에 ‘춘전알령’을 운운한 것은 현종 9년의 능행을 말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양가〉의 저술은 현종 9년 이후의 첫 갑진년으로 이듬해인 현종 10년, 즉 1844년이다.

한편 〈한양가〉의 작자는 한산거사라고 알려져 있으나 그 한산거사의 정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한양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19세기 서울의 모습을 매우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고 특이하게도 ‘승전놀음’이라는 별감들의 놀음을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19세기 서울에 거주하던 별감과 같은 서울의 중간계층일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한양가〉의 이본으로 밝혀진 작품은 국립 중앙도서관 소장 〈한양가〉와 송신용 교주본 〈한양가〉, 『악부』 상권에 실려 있는 악부분 〈한양풍물가〉, 김민수의 필사본을 박성의가 다시 필사한 박성의본 〈한양가〉, 고소설 『유효공선행록』 6권 6책 말미에 부록으로 전사되어 있는 유효공선행록 부록본 〈한양가〉, 이병기의 가람문고본 『망노각수기』에 실려 있는 망노각수기본 〈한양태평가〉, 고려대학교 소장 방각본 〈한양가〉, 임기중의 『역대가사문학전집』 19권에 실려있는 〈한양가〉¹⁸⁾, 48권의 〈한양가〉 2편¹⁹⁾, 49권의 〈한양풍물가〉 3편²⁰⁾ 등 다수가 있다.

17) 송신용 교주, 『한양가』, 정음사, 1949.

18) 분류번호 998번.

19) 분류상으로는 작품번호 2357, 2358, 2359 세 편의 작품이 한양가의 내용에 해당된다. 그러나 2358번의 작품 〈한양가〉와 2359번의 작품 〈신증동요〉는 원래 합철되어 있던 것을 『역대가사문학전집』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못 분철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하나의 작품으로 보기로 한다.

20) 분류번호 2364번, 2365번, 2366번.

이러한 이본을 표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²¹⁾.

〈표 1〉 향토향양가계 <한양가>의 이본 현황

번호	이름	분량	출전	비고
1	漢陽歌	1528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	『역대가사문학전집』 가번 2358+2359(48권)
2	漢陽歌	1528구	고려대 소장 목판본	
3	漢陽歌	1524구	송신용 소장 목판본	송신용 교주본 대본
4	漢陽歌	1512구	박성의 사본	김민수 소장본 복사
5	漢陽歌	1622구	임기중 소장본	『역대가사문학전집』 가번 993(19권)
6	漢陽太平歌	1513구	『망노각수기』본	
7	漢陽歌	1528구	임기중 소장본	『역대가사문학전집』 가번 2357(48권)
8	漢陽風物歌	1515구	『가집(二)』본	『역대가사문학전집』 가번 2364(49권)
9	漢陽風物歌	590구	미완본	『역대가사문학전집』 가번 2365(49권)
10	漢陽風物歌	1515구	이용기 편 『악부(上)』본	『역대가사문학전집』 가번 2366(49권)
11	漢陽歌	1440구	『유효공선행록』 부록본	

21) 표는 조원학(2022)의 논문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나 그중에서 이용기 편 의 『악부(下)』본을 제외하였다. 이용기본의 경우 향토향양가 계열의 내용이라고는 하나 작품의 분량이 170구로 다른 <한양가>에 비해 굉장히 소략하며 <한양가>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향토향양가' 계열의 이본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최강현(1983)은 이를 이용기가 만년에 지은 작품이라고 보고 있으며, 여기서는 최강현의 의견에 따라 이를 이용기작의 별도의 이본으로 분류하고 제외하였다.

이외에도 아직 학계에 소개되지 않고 원자료 상태에 있는 <한양가>도 제외하였는데 이는 후속 연구에서 함께 연구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상의 이본들을 살펴보면 미완본인 9번 <한양풍물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슷한 분량이며 서술 또한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다만 이중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을 선본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을 중심으로 <한양가>를 살펴보고 하겠다.

3. 내용상 구성 방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 <한양가>의 경우 총 754행 1528구로 구성되어 있는 장편의 가사 작품이다. 한양의 풍속과 문물, 경관 등을 묘사하며 수도 한양의 모습을 찬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양가>는 한양의 풍수지리적 위치에 대한 서술로 작품을 시작하고 있는데 작품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ㄱ) 서사 : 한양의 풍수지리적 위치에 대한 서술 - (ㄴ) 궁전의 광경과 그 역할, 궁내부의 세세한 풍경 - (ㄷ) 호위무사와 궁인 등의 모습 - (ㄹ) 각 관청이 수행하는 역할 - (ㄴ) 한양 시장의 모습과 각 상점의 상품 소개 - (ㅅ) 승전놀음의 복식과 놀이처, 가무에 대한 묘사 - (ㅇ) 임금이 능행하는 모습 - (ㅇ) 과거 시험장의 모습 서술 - (ㅈ) 결사 : 왕도인 한양에 대한 예찬과 임금과 왕조에 대한 예찬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양가>의 본문에서 서사와 결사를 제외한 중앙 부분이 본사이다. 본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러한 구성을 좀 더 나누어 보자면 크게 ‘궁궐과 관청’ - ‘시장과 놀이’ - ‘능행과 과거’로 나뉘볼 수 있다.

궁궐과 관청 부분에서는 궁궐 경관의 묘사와 관청의 종류를 나열하는 내용과 함께 각 관청에 소속된 관직과 관원들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룬다. 시장과 놀이 부분에서는 육조거리의 화려한 시전 문물을 묘사하고 있으며 별감의 승전놀음에서는 화려하고 향락적인 모습을 상세히 서술한다. 능행과 과거 부분에서는 국가 행사를 준비하는 관리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구성을 살펴보다 보면 초반에는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작품의 내용 전개가 점차 인물들의 행동과 의례를 중점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양가>의 내용 전개가 한양이라는 정

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가 동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본사 내에서 공간의 이동은 궁궐과 관청 - 시장과 놀이처 - 임금의 능행길과 과거장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간 이동과 함께 초반부 공간을 중심으로 하던 서술이 점차 인물의 행위를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데, 이는 특히나 임금의 능행 부분에서 크게 드러난다.

<한양가>에서 임금의 능행은 임금이 궁을 떠나 현릉원까지 가는 모습을 서술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때의 내용을 잘 살펴본다면 다소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다. 이전까지의 내용은 한양의 모습을 서술하며 한양이라는 공간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을 살폈지만 능행이라는 것은 한양이라는 공간에서 한양 밖을 향해 나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능행에 대한 서술에서는 한양이라는 공간보다는 임금이 능행을 하기 전에 이를 준비하는 모습과 임금이 행차하는 모습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능행보다 앞서 서술된 놀이처에 대한 서술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놀이처에 대한 서술에서는 한양의 놀이문화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각 인물군의 놀이 행위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 또한 능행에 대한 서술과 비교한다면 중심이 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한양가>의 본문 중 한양의 놀이문화에 대한 서술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화려가 이러할 제 놀인들 없을쏘냐
 장안소년유협객과 공자왕산 재상자제
 부상대고 전시정과 다방골 제갈동지
 별감무감 포도군관 정원사령 나장이라
 남북촌 한량들의 각색 놀음 장할씨고
 선비의 시축놀음 한량의 성청놀음
 공물방 선유놀음 포교의 세찬놀음
 각사서리 수유놀음 각집 겸종 화류놀음
 장안의 편사놀음 장안의 호걸놀음
 재상의 분부놀음 백성의 중포놀음
 각색 놀음 벌어지니 방방곡곡 놀이철다
 놀이처 어디멘고 누대강산 좋을씨고

조양루 석양루며 명설루 춘수루와
 흥엽정 노인정과 송석원 생화정과
 영파정 춘초정과 장유헌 몽담정과
 필운대 상선대와 옥류동 도화동과
 창의문 밖 내달아서 탕춘대 세검정과
 옥천암 석경루와 한북문 진관이며
 경강정 내달아서 창랑정 압구정과
 죽한정 탁영정과 별영 안 읍청물다²²⁾

놀이문화에 대한 서술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양 각지의 공간을 중심으로 어떤 계층이 어떠한 놀이를 벌이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즉 특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인물의 모습을 서술한 것이다. 놀이문화에 대한 서술을 하기 때문에 인물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간에 대한 연결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능행에 대한 서술의 경우 이러한 공간 중심의 서술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서술의 주체가 되는 임금의 행렬이 능행, 즉 움직이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행에 대한 서술에서는 특정 공간과의 연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작품 내에 능행과 관련된 서술에서 언급되는 공간은 두 곳이다. 한 곳은 임금이 능행을 시작하는 어전이며, 다른 한 곳은 임금이 능행을 위해 거쳐 지나가는 노량진이다. 그러나 이 두 공간은 능행을 위해 거쳐 지나가는 공간일 뿐, 능행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능행에 대한 서술에서는 공간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으며 그보다는 능행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거나 임금 행차의 위엄과 화려함을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공간보다는 인물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다음은 임금의 능행에 대한 서술 중 일부를 살펴본 것이다.

부도가 앞도가며 한성부 꼭뒤두가
 사헌부 도가 끝에 선진이 동군한다

22) 이윤석·김유경 교주, 『남훈태평가 한양가』,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4, 157~161쪽.

기대장 앞을 서니 마군의 머리로다
 오마대 마군들은 향오가 엄숙하다
 별대마병 선기대며 천총파총 기총이며
 각초 초관 모양들은 제 방위색 물을 들어
 더그레며 수기 쥐고 원양진 보군작대
 전초후초 좌초우초 전사후사 좌사우사
 삼향으로 행군하니 초기가 앞을 섰네
 범 같고 곰 같으니 군상이 웅위하다
 도감이 선상이라 대장의 기구 보소
 전진 쓴 겹전배에 영기 순시 곤장 주장
 청도기 앞을 서고 대기치 벌여섰다.
 관이영전 승기전에 월도 든 회자수며
 금안준마 좋은 말에 상모 달고 주락 달고
 흰 무명 된밀치며 흰 무명 마혁 달고
 안올린병거지에 상모에 공작우며
 비단 군복 우단 요대 환도 차고 등채 짚고
 밀부 병부 꺼서 차고 동개에 미전 꽃고
 다홍 대단 큰 수기에 삼군사명 네 큰 자를
 두렛이 새겨내어 보기 좋게 써서 꽃고
 그 뒤에 문무낭청 그 뒤에 중군 서고
 교련관 집사들이 뒤를 막아 호위한다²³⁾

내용을 보면 임금을 호위하고 진군하는 군사들의 웅장한 모습과 그들의 화려한 외관을 묘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군사들의 행위에 집중을 하고 있을 뿐, 이들이 지나가는 공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한양가>의 전개 방식이 점차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한양가> 내에 왕의 능행에 대한 서술이 등장하는 것이 다소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유로는 왕의 능행이 언제나 보고 접할 수 있는 상시적인 행사가 아닌 특정한 시기에만 볼 수 있는 의례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한양가>라는 공간적 상징성을 띤 제목과 서울의 모습을 그리는 성시전도의 성격을 보이는

23) 위의 책, 180~182쪽.

<한양가>의 특성을 보았을 때 왕의 능행이 한양의 모습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은 이어지는 과거시험에 대한 내용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경우 식년시로 시행되어 3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었고,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경우 식년이 아니더라도 과거시험을 치르기는 했지만 이 역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과거시험 또한 한양에서 언제나 접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특정한 시기에만 진행되는 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한양가>의 일부로 넣어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의아함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양가>의 향유층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양가의 향유층이 어떠한 이들인지 살펴보았을 때, 비로소 <한양가> 내에 서술된 의례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양가>의 향유층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4. 작자 및 향유층에 대하여

<한양가>는 다수의 이본에서 그 작자로 한산거사라는 인물을 지목하고 있다. 때문에 <한양가>의 작자가 한산거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한양가>의 작자로 알려진 한산거사의 정체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 추측을 통해 작자의 정체를 추정해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 시기의 연구에서는 <한양가>의 내용에서 19세기 서울의 모습을 매우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고 ‘승전놀음’이라는 별감들의 놀음을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산거사를 19세기 서울에 거주하던 별감과 같은 서울의 중간계층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한산거사에 대한 추측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한양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독특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한양가>의 많은 부분에서 무장이나 무관 등 무인의 모습이 중점적으로 서술된다는 점이다.

<한양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궁전 내부의 세세한 풍경에 대한 묘사 이후 궁인들에 대한 서술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굉장히 이른 시점에 무관에 대한 서술이 등장한다. 다음은 <한양가>에서 무관에 대한 서술이 등장하는 부분이다.

건장한 무예청은 자지군복 남전대에
 십팔기에 주장하니 기상이 효용하다
 밤이면 호피두건 호피군복 삼모장에
 파수마다 앉았으니 호분군 되어 있고
 맵시 있는 전별감은 이팔청춘 아이로다
 당당홍의 자지두건 남광다위 넓은 띠를
 가슴에 눌러 띠고 빛 좋은 순금 동곳
 큰 대 자 새겨내어 모양 좋게 꽃아 있고
 모대한 사알 사약 융복한 무감통장
 별감 무감 영통하여 합문에 등대하고²⁴⁾

이는 무예별감과 각전별감에 대한 서술로 각 처소의 나인들에 대한 언급보다도 먼저 등장한다. 이는 궁인들에 대한 서술 중에서도 거의 앞부분²⁵⁾에 등장하는 부분으로 분량이 상당하다. 이러한 무관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면 옷차림에 대한 묘사 등에서 다른 궁인들에 대한 묘사보다 더 많은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각 관청의 궁인들에 대한 서술 중에서 무관들에 대한 서술이 등장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별군직 선전관은 보기 좋은 비단 군복
 다홍 대단 홍수 달고 순금 밀화 쌍 단추며
 그 위에 갑사 관대 수박빛이 고을씨고
 오위장 충의장과 문부장 수문장은
 호반의 벼슬이라 관대 속에 군복 입고
 육백 금군 호위군관 내삼청에 번을 들어
 무예도 가늠하고 치마도 날째도다²⁶⁾

24) 앞의 책, 118~119쪽.

25) 가장 먼저 내시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사지한 내시들은 승전차지 장번이라’라는 짧은 구절에 그치기에 사실상 별감에 대한 서술이 첫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6) 앞의 책, 123쪽.

별관직 선전관과 오위장, 충익장, 문부장, 수문장은 모두 무관직의 관리들이다. 얼핏 보았을 때 그리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나 비율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등장하는 장면은 승정원을 묘사하는 부분인데, 승정원의 승지들을 묘사하는 것보다 주변 건물을 호위하고 있는 무관들의 모습을 더욱 주목하여 서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육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대표자로 병조의 대표인 병조판서를 내세운 부분이 있어 주목된다. 다음은 <한양가> 내에서 병조판서가 등장하는 부분이다.

이호예병형공은 육경이 되었어라
호기 있는 대사마는 백보 밖에 인배 세고
건강한 뇌자 기수 원양진 작대하여
쌍쌍이 벽제 소리 날레고도 영렬하다²⁷⁾

병조판서를 ‘대사마’라고 부르면서 병조판서의 등청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으며,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병조의 분량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여기서 ‘대사마’는 중국 육경의 명칭으로 병조판사를 높여서 부른 것이다. 또한 금위영, 어영청, 총융청 등의 군영과 포도청, 의금부와 같은 군사조직에 대하여는 육조에 대한 설명 전체와 동일한 분량을 할애하여 묘사하고 있다²⁸⁾.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한양가>의 서술은 많은 부분이 무관에게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육조에 대한 서술 중에서 주목할 만한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호조는 판탁지라 부세 전곡 맡아 있어
삼당상 육낭청에 별레방이 주장이요
회계하는 계사들은 도필지리 되어 있고

27) 앞의 책, 124쪽.

28) 조원학, 「<한양가>에 나타난 중간계층의 관심과 그 표현양상」,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65~70쪽.

공조는 수형부라 각색 장색 총찰하여
 응역하기 일삼으니 와서 선공 매여 있고
 예조는 남궁이라 선왕제례 본받아서
 군왕의 진퇴범절 종사 산천 제향이며
 제례작악 일삼으니 통례원 거느리고
 병이조 동서편은 택문택무 추려내어
 내직이며 외직이며 정경 아경 도백 유수
 주서 한림 각신들과 옥당 승지 대간이며
 묘사전궁 관원이며 능참봉 수봉관과
 봉사 직장 감역 동몽교관 부도사와
 군자판사 광홍수와 능령이며 선혜낭청
 각사제조 부제조며 이조전랑 홍문정자
 병사 수사 방어사며 영장 중군 통제사와
 첨호 만호 병우후며 사도참군 권관이며
 선전관 부장들과 별근직 수문장과
 훈련판사 주부들과 도총 도사 경력이며
 내금장 오위장 창검초관 협련초관
 문음무 열읍수령 비천이며 병리빔을
 택인비망 일삼으니 입대책중 하였어라
 형조는 대사구라 포장을 영통하여
 각색 금란 조율하니 기강이 거룩하다²⁹⁾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은 이조와 병조를 묶어서 ‘병이조’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육조를 가리킬 때에 ‘이, 호, 예, 병, 형, 공’의 순서로 서술하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육조 중에서는 이조의 위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양가>에서는 이조와 병조를 묶어서 서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조를 앞으로 붙여서 ‘병이조’라고 서술하였다. 이는 병조의 위치를 이조의 위치 그 이상으로 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능행을 서술한 단락을 보면 이는 더욱 명백해진다. 임금을 호위하는 무관들의 묘사에 많은 비중이 할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들의 움직임은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다음은 능행이 서술된 단락의 일부이다.

29) 앞의 책, 127~131쪽.

기대장 앞을 서니 마군의 머리로다
 오마대 마군들은 향오가 엄숙하다
 별대마병 선기대며 천총 파총 기총이며
 각초 초관 모양들은 제 방위색 물을 들어
 더그레며 수기 쥐고 원양진 보군작대
 전초 후초 좌초 우초 전사 후사 좌사 우사
 삼향으로 행군하니 초기가 앞을 섰네
 범 같고 곰 같으니 군상이 웅위하다
 도감이 선상이라 대장의 기구 보소
 전진 쓴 겹전배에 영기 순시 곤장 주장
 청도기 앞을 서고 대기치 벌여 섰다
 관이 영전 승기전에 월도 든 회자수며
 금안준마 좋은 말에 상모 달고 주락 달고
 흰 무명 된밀치며 흰 무명 마혁 달고
 안올린병거지에 상모에 공작우며
 비단 군복 운단 요대 환도 차고 등채 짚고
 밀부 병부 꺼서 차고 동개에 미전 꽃고
 다홍 다단 큰 수기에 삼군사명 네 큰 자를
 두렛이 새겨내어 보기 좋게 써서 꽃고
 그 뒤에 문무낭청 그 뒤에 중군 서고
 교련관 집사들이 뒤를 막아 호위한다³⁰⁾

능행에 대한 서술 일부만을 살펴봤는데도 무관들에 대한 서술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왕권의 위엄을 강조하기 위해 임금의 어가 행렬을 호위하는 별감들은 화려한 복장과 위엄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냈는데, 이것이 <한양가> 내 능행에 대한 서술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시험장에 대한 서술에서도 무관에 대한 관심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과거 시험에 대한 단락의 일부분을 살펴본 것이다.

동동일출대명궁하니 오색운중가옥룡을
 창검군 앞을 서고 선진이 늘어섰다

30) 앞의 책, 179~182쪽.

총관 각신 모든 백관 걸어서 배종한다
 의장이 앞을 서고 양산이며 교룡기며
 병조판서 금훤낭청 오위장 우림장과
 가전의 시위 소리 길고도 늘어진다
 장악원 일등 악생 다홍 관대 아자대에
 선악을 길게 내니 여민동락 화할씨고
 옥교로 오오실 제 양산이 해를 가려
 비속이 받으시고 뒤에는 현무선을
 충의가 들었으며 키 큰 봉두별감
 갖은 시위 경필 소리 가락하고 엄위하다
 협련시위 무예청은 고개 숙여 하는 소리
 듣기에도 청속하고 보기에도 경존하다
 청양문 나아실 제 대답소리 웅장하다³¹⁾

이는 과거시험이 시작되는 단계에 임금이 행차하는 장면을 서술한 부분이다. 임금이 나서면서 총관 각신 모든 백관이 걸어서 임금을 배종한다라는 서술이 있는데 이때 언급되는 백관의 모습이 병조판서, 금훤낭청, 오위장, 우림장, 봉두별감, 협련시위 무예청 등 무인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외에도 창과 검을 든 군사들이 나타나 위엄을 보이는 등 무관에 대한 묘사가 다수 나타나고 있으나 문관에 대한 묘사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과거 시험에 대한 내용 중 <한양가>에서만 드러나는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는 과거 시험장의 폐단으로 지적되었던 과거가 <한양가> 내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서술된다는 점이다. 다음은 <한양가> 내에서 과거 시험장의 폐단이 서술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

집춘문 월근문과 통화문 흥화문에
 부문을 하는구나 건장한 선접군이
 짧은 도포 젓혀 매고 우산에 공석 싸고
 말뚝이며 말장이며 대로 만든 등을 들고
 각색 글자 표를 하여 등을 보고 모여 섰다
 밤중에 문을 여니 각색 등이 들어올제

31) 앞의 책, 194~195쪽.

줄불이 펼쳤는 듯 새벽 별이 흐르는 듯
 기세는 백전일세 빠르기도 살 같도다
 현재관 밑 설포장에 말뚝 박고 우산 치고
 휘장 치고 등을 꼿고 수종꾼이 늘어서서
 접마다 지키면서 엄포가 사나올사
 그 외에 약한 선비 장원봉 기슭이며
 공장 및 생강밭에 잠뵈 치고 앉았으니
 (중략)

만장중 선비들이 붓을 들고 달려간다
 각각 제 접 찾아가서 책 행담 열어놓고
 해제를 생각하여 풍우같이 지어내니
 글하는 거벽들은 구구이 읊어내고
 글씨 쓰는 사수들은 시각을 못 머문다
 글 글씨 없는 선비 수종꾼 모양으로
 공석에도 못 앉고도 글 한 장을 애걸한다³²⁾

과거 시험이 시작되기 전 시점에서 서술된 내용을 보면 선점꾼이 먼저 과거장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가 하면 수종꾼들이 각각의 접을 지키면서 엄포를 놓는 모습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또한 과거 시험이 한창일 때의 서술을 살펴보면 거벽이 글귀를 읊어대고 사수들이 이를 받아 적는 부분에 대한 서술이 있는데 이 또한 굉장히 상세하고 객관적이다. 일반적으로 거벽과 사수들은 과거의 폐단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에 대한 서술은 주로 비판적인 시선이 많으나, <한양가>에서는 이를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점으로 본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면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 후기는 과거의 폐단이 심하여 이러한 모습이 더 이상 폐단이 아닌 관례로 여겨질 정도까지 그 정도가 심해졌다고는 하나, 이를 여전히 폐단으로 지적하는 만큼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한양가> 내의 과거장에 대한 서술에서는 이를 ‘폐단’이라고 지칭하지 않으며 과거장에서 볼 수 있는 혼한 풍경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모습을 서술하는 화자가 과거 시험에 참여하지 않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과거장의 광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그러므로 <한양가>는 과거에 참여하지 않는

32) 앞의 책, 192~196쪽.

인물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았을 때, <한양가>는 무인 중심적인 관점에서 서술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별감놀음을 서술한 부분을 본다면 <한양가>를 지은 한산거사가 19세기 서울에 거주하던 별감³³⁾과 같은 서울의 중간계층이라는 주장은 굉장히 타당해 보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별감이 속한 집단이 서울의 중간계층이라는 점이다. 조선 후기 서울의 중간계층은 서울의 도시문화를 선도하였으며, 특히 별감들은 서울의 유흥을 주도하는 왈짜라는 집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왈짜 집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지체 높은 양반 무관직을 포함하여 북경 역관, 서리 등 경아전층, 대전별감과 같은 액정서 소속 하예, 군영, 장교, 포교, 군교 등이 포함되며 나장, 정원사령, 무예별감, 시정 상인, 남촌 한량, 노래 명창과 악기 명인, 연희가객 등 유흥문화와 가까운 계층이 포함되어 있다³⁴⁾. 무인의 관점이 다수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여러 놀이문화에 대한 서술 또한 상세한 <한양가>는 이러한 왈짜집단의 영향을 받아 창작되고, 그들 사이에서 향유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양가>의 작자인 한산거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송신용(1949)은 순한글로 된 목판본 <한양가>에 한문으로 주해를 달았는데, 그는 자신의 주해에서 한산거사를 <漢陽歌>의 漢과 같은 한자를 써서 ‘漢山居士’라고 표기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뒷받침 근거는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송신용 이후의 논의에서는 한산거사가 ‘閑山居士’로 표기되기도 한다. 이는 한산거사의 정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이름이 원형이 밝혀지지 않고 한글 표기로만 전해졌기에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한산거사의 한문 표기는 다시 재고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33) 별감이란 각전별감과 무예별감을 가리키는데, 각전별감은 대전별감과 중군전별감, 동궁별감 등 액정서 소속의 관리이며 무예별감은 훈련도감에 소속된 하급관리이다. 임금을 지척에서 모시는 인물들로, 그 역할이 비슷하여 별감이라는 명칭이 통용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무예별감의 인원 증가로 인해 별감이란 명칭은 주로 무예별감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모두 왈짜집단이라는 특정 집단 안에서 같은 문화를 향유하고 유흥활동을 하였다.

34) 송정란, 「조선후기 무예별감의 활동과 인식」, 『용봉인문논총』 60,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2.

지금까지 살펴본 <한양가>의 향유층에 대한 내용을 생각한다면, 한산거사는 ‘閑散居士’로 표기를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閑散’은 품계만을 가지고 직무 없이 한가하게 지내는 관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때의 閑散居士는 한가하며 일이 없는 한량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별감들과 같이 왈짜집단에 속하던 인물군으로 <한양가>의 향유층과도 적합하게 들어맞다고 볼 수 있다. 한산거사의 정체가 별감과 같은 서울의 중간 계층이라고 보았을 때, 자신을 한량이라고 지칭하는 인물이거나 자신과 어울리던 한량의 명칭을 차용하여 필명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5. <한양가>의 당대적 의의와 역할

지금까지 <한양가>의 향유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양가>의 향유층은 별감 등의 무관을 포함한 중간계층으로 왕실의 의례를 수행하는 하급 관리직을 포함한다. 때문에 <한양가> 내에는 무관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급 관리의 모습을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향유층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당대의 입장에서 <한양가>는 단순히 한양의 풍물을 노래하는 가사가 아니라 한양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경험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공유하고 같은 집단 내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한양가>의 내용 구성을 살펴며 수도 한양의 풍물을 노래하는 가사인 <한양가>에 능행과 과거 시험이라는 다소 일시적인 행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은 바가 있다. 그런데 이는 <한양가>의 향유층과 연결해보다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부분이다.

외부적인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한양을 대표하여 표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행위보다는 늘 존재하는 공간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한양가>에서는 공간으로서의 한양뿐만 아니라 한양에서 이루어지는 인물들의 행위와 그 인물들이 만들어가는 의례에도 집중했다.

한양이라는 일상공간을 살아가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단순히 공간에

대한 서술만으로는 한양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들이 한양이라는 공간 내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활동하는지를 서술해야 한양이라는 공간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한양을 대표하는 형태를 보이기 위해서는 인물들의 행위가 개인의 신변잡기적인 내용이나 특정 집단만이 행하게 되는 특수한 모습이 아닌, 한양 내의 다수의 인물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했다.

이에 <한양가>에서는 한양에 있는 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정의 모습과 놀이문화에 대한 서술에 더하여 국가 차원의 큰 행사인 능행과 과거 시험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능행과 과거 시험 등의 행사는 언제나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양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에 한양을 상징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한양에서 살아가는 이들 관점에서 능행과 과거 시험과 같은 행사는 한양을 대표하는 큰 국가 행사일 뿐만 아니라 한양 내의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기억의 일부였을 것이다. 때문에 그들의 관점으로는 능행과 과거 시험에 대한 서술을 통하여 한양이라는 공간이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양가>는 다수의 이본이 생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각본으로도 발간되어 유통된 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유흥적인 측면에서 한양의 놀이문화에 대한 향유를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한양가>의 작품 내에 능행과 과거 등 국가적인 의례가 함께 서술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관점에서의 활용도 가능해진다.

의례에 대한 내용이 <한양가> 내에 서술되면서 작품이 지어지던 때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볼 수 있게 되었으며, 당시에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물들도 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나 이러한 의례는 별감이나 하급 관리를 중심으로 관찰되고 묘사되었는데, 이러한 형태를 고려한다면 <한양가>는 하급 관리들이 능행과 과거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의례의 기본적인 모습을 참고하는 자료로 쓰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양가>는 문화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역할 또한 함께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자료

- 임기중, 『역대가사문학전집』 19권, 아세아문화사, 1988.
_____, 『역대가사문학전집』 48권, 아세아문화사, 1988.
_____, 『역대가사문학전집』 49권, 아세아문화사, 1988.
역대가사문학집성 DB

2. 단행본

- 강명관, 『한양가』, 신구문화사, 2008.
박성의 교주, 『농기월령가·한양가』, 보성문화사, 1978.
송신용 교주, 『한양가』, 정음사, 1949.
이윤석·김유경 교주, 『남훈태평가 한양가』,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4.

3. 논문

- 권정은, 「조선시대 성시(城市)관련 시·화(詩·畵)의 지향과 <한양가>의 차별성」, 『문학치료연구』 28,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139~168쪽.
(UCI : G704-SER000008852.2013.29..004)
- 김은희, 「<한양가>의 존재양상과 그 의미」, 『반교어문연구』 26, 반교어문학회, 2009, 279~307쪽.
(UCI : G704-001785.2009..26.019)
- 남정희, 「「한양가」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 탐색」, 『한어문교육』 26, 한국언어문학 교육학회, 201, 239~270쪽.
(UCI : G704-SER000008904.2012.26..012)
- 문주석, 「한양가연구」, 『숙대학보』 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55, 219~243쪽.
- 송정란, 「조선후기 무예별감의 활동과 인식」, 『용봉인문논총』 60,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2, 117~142쪽.
(DOI : 10.35704/YJH.60.4)
- 이병기, 「漢陽歌에 나타난 서울의 모습」, 『향토서울』 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57, 137~156쪽.
- 이장원, 「음악사적 관점에서 본 조선후기 가사문학-국문 가사 「한양가」를 중심으로-」, 『국악원논문집』 43, 국립국악원, 2021, 1~27쪽.

- 정기철, 「漢陽歌研究 - 作者意識을 中心으로」, 『한남어문학』 12, 한남어문학회, 1986. 91~115쪽.
- 정영문, 「<한양가>에 나타난 한양의 놀이문화 고찰」, 『한국문학과 예술』 35,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0, 315~346쪽.
(DOI : 10.21208/kla.2020.09.35.315)
- 정인숙, 「19세기~20세기 초 시가를 통해 본 서울의 인식과 근대도시의 의미지향」, 『문학치료연구』 28,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165~193쪽.
(UCI : G704-SER000008852.2011.20..002)
- 조원학, 「<한양가>에 나타난 중간계층의 관심과 그 표현양상」,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최강현, 「<한양가>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4.
- _____, 「향토 한양가(鄕土漢陽歌)의 이본(異本)을 살핌」, 『배달말』 8, 배달말학회, 1983, 249~265쪽.
- _____, 「가사문학 이본의 처리와 주석 대상 작품의 확정 방안 -<한양가>를 예로 하여」, 『한국문학연구』 2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2, 133~166쪽.
(UCI : G704-001857.2002..25.006)
- 최은숙, 「<한양가>에 나타난 한양 경관과 장소애착성」, 『한국문학과 예술』 10,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2, 5~31쪽.
- 홍홍구, 「<한양가>의 예술사의 한 단면」, 『한국어문연구』 5, 한국어문연구학회, 1990, 309~320쪽.

| Abstract |

The Significance of “Hanyangga” at the time through the perspective of the enjoyment class

Park Eun-bin
Chonnam Univ. Ph.D

“Hanyangga” is a work that deals with the customs and culture of Hanyang, the capital of Joseon, and is a Gasa that details the appearance of Hanyang in the 19th century.

The content composition of “Hanyangga” can be largely divided into “Palace and Government Office”, “Market and Play”, and “the king's march and examination”. One characteristic of this content composition is that the development of the work revolves around the movement of space at the beginning and then gradually changes around the actions and rituals of the characters.

The fact that the content composition of “Hanyangga” exhibits this form should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the enjoyment class. Hansan Geosa, known as the author of “Hanyangga”, is estimated to be the intermediate class of Seoul, such as Byeolgam, who lived in Seoul in the 19th century. This argument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description of a military officer in the work is detailed and occupies a large amount in the description.

If you look more closely at the contents of the work, it can be seen that the enjoyment of “Hanyangga” is the intermediate class, including independents such as the annex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includes lower-level management positions that perform royal rituals.

Looking at these enjoyment group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ime, “Hanyangga” is not just a Gasa that sings Hanyang's pungmul, but a work that evokes empathy within the same group by sharing memories and emotions about real experiences in the space of Hanyang.

In addition, “Hanyangga” seems to have been used as a functional role for contemporary figures as anyone can access the contents of activities taking place in Hanyang without time and space constraints through “Hanyangga”.

Key words : Hanyangga, HansanGeosa, Byeolgam, the enjoyment class

투고일 : 2024년 1월 29일 심사기간 : 2월 6일 - 2월 18일 게재확정일 : 2월 21일